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새 기록, 새 기준창조예로!

검덕의 영웅소대와 우리 채준소대

상농광산 6.6갱 박기록채준소대원들의 투쟁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광광산 4, 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상농광산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광물생산에서 자랑한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그들속에는 백두의 굴참없는 공적정신으로 부각되는 애로와 난관을 뚫아버리거나 거머쥐는 투쟁을 벌여 지난 6월 19일까지 연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6, 6갱 박기록채준소대원들도 있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확대발전 시키고 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올해전투에 진입하면서 이곳 소대원들은 일광물생산전투목표를 지난 시기에 비해 1.8배이상 높여 세웠다. 만리마선구자대항을 벌이는 올해에 거머쥐는 투쟁기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해 이렇듯 비상한 전투목표를 내세워 소대의 전투원들이 170

일의 하루하루를 어떤 결사의 각오로 이어나왔는가.

상반년 광물생산계획수행의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오던 지난 4월 초 소대원들은 뜻밖의 난관이 막아섰다. 예상치 않은 골은 바위층이 나타나 그들의 전진속을 가로막았다. 발과 표를 밀어치기 소대는 그날 전투목표를 미달하게 되었다.

일부 소대원들속에서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는 태양일까지 상반년계획을 수행할수 없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그날 전투목표미달에서 소대장 박기록동무의 근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슨 나약한 소리를 하는가. 새해의 첫 아침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선언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우리 모두 태양일까지 상반년 광물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조건을 따지지 당일에 한번 다진 맹세를 저울질한다면 우리 어찌 만리마선구자의 로동계급이라고 할수 있는가.

소대장의 목소리는 잠시나마 동요하던 전투원들에게 결사관철의

정신과 투쟁분열을 때려부었다. 또다시 막강한 결사관철의 각오로 일선전투목표를 거머잡기 위한 결사전이 시작되었다. 기록소대원들뿐 아니라 광산초급당원회의 일꾼들의 기록들도 지원물자를 안고 막강하게 들어와 일꾼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박기록소대장은 때때로 소대원들과 마주앉아 새로운 발파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교대를 마치고는 파와기술보급실에 찾아가 탐구의 분초를 이어나갔다. 3대 혁명소조원인 김복남동무가 이곳 소대원들을 격려했다.

드디어 이곳 소대원들은 3일 만에 끝내 새로운 발파방법을 상안도입하고야말았다. 그 결과 불꽃은 철야전투를 벌려 비전원 일선전투목표를 보장한 소대는 전투공적들을 뛰어넘어 뜻깊은 태양일까지 당일에 결의다 전대로 상반년 광물생산계획을 이어나갔다.

전술절점으로 연간계획을 완수한 목표를 내걸고 심심치않이 내달리던 소대원들은 경에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금광광산 4, 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에

게 축하편지를 보내주신 소식을 막강에서 접하게 되었다.

자기들과 닮지 않은 금광의 광부들을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로 불러주시며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고 그토록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어린 축하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친구들.

소대원들은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기풍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연간계획수행날자를 한달이나 더 앞당겨 경하고 산악간이 분발해나갔다.

검사관들의 정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며 소대원들은 부족하는 정찰과 정태를 비롯한 자재도 자체로 해결하면서 연속공적들을 뛰어넘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인 지난 6월 19일까지 연간 광물생산계획을 앞당기고야말았다. 이 성과속에는 소대원들의 중산투쟁, 창조투쟁, 동격투쟁을 힘껏 발휘한 전도상동무들 비롯한 광산일꾼들과 정초급일꾼들의 노력도 뜨겁게 여겨졌다.

지금 상농광산 6, 6갱 박기록채준소대원들은 2년분 광물생산성과 만리마선구자대항을 빛내일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막강마사에서 중정의 구원군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영민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는 틀이 크게 세우고 내부에 힘과 질적력을 높였을 때 동원하여 생산정성상의 동을 높이 올려서 제품의 질적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목표로 들어주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경양수지전체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력자강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정성상의 동을 높이고 생산정성상의 동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8일 경양수지전체공장은 101%로 완수하고 수지전, 수지부품을 비롯하여 원료수지생산계획도 100%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현대적인 생산수단을 갖추고 경제의 다영화, 다종화, 국산화를 최상의 높에서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 정초부터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창조투쟁, 동격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는 틀이 크게 세우고 내부에 힘과 질적력을 높였을 때 동원하여 생산정성상의 동을 높이 올려서 제품의 질적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목표로 들어주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경양수지전체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력자강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정성상의 동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8일 경양수지전체공장은 101%로 완수하고 수지전, 수지부품을 비롯하여 원료수지생산계획도 100%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현대적인 생산수단을 갖추고 경제의 다영화, 다종화, 국산화를 최상의 높에서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 정초부터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창조투쟁, 동격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투쟁목표는 틀이 크게 세우고 내부에 힘과 질적력을 높였을 때 동원하여 생산정성상의 동을 높이 올려서 제품의 질적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목표로 들어주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경양수지전체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력자강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정성상의 동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8일 경양수지전체공장은 101%로 완수하고 수지전, 수지부품을 비롯하여 원료수지생산계획도 100%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현대적인 생산수단을 갖추고 경제의 다영화, 다종화, 국산화를 최상의 높에서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올해 정초부터 생산계획을 앞당겨

순간도 전진을 멈출수 없다

라 흥공크리트 칩목공장에서

진, 정성기풍을 비롯한 일꾼들이 직정함을 더하여 대공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성정적지사업을 진정적으로 벌이고있다. 현장조각에 맞게 로복비치를 기술적으로 하고 어렵고 힘든 모험이마다에 넘겨져 애를 흘리며 결의의 돌과구를 열어나갔다. 기사장 선우병일, 기술보조장 주광만동무들은 지침을 돌이켜 사색과 탐구로 지난 기간 미흡하였던 생활자업원의 프레스를 진정하고 과학생산에 받아들일 일구수있도록 현대적으로 개조하도록 하였다.

정목장, 철길장, 세척장, 물은 자체로 실행되는데 맞게 철길조립과 타임을 비롯한 광크리트칩목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오늘의 한호한조가 만리마선구자대항과 맞닿아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혼합기와 진정기중기가 뜻하지 않게 멈춰섰을 때 너도나도 펌프나 혼합기를 되고 혼합기를 되여 정목장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투쟁의 나날에는 일선계획을 미달할수 있는 어려운 난관들도 제기되었다.

어느날 보이라화선의 이차부 분 벽돌이 무너져내리는 긴급경향이 발생하였다. 화선안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수습시간이 길고그렇게 되면 이틀간

장하면서 생산을 중단없이 내내 철길장 1작업반과 3작업반 전투원들, 금수장지에 이상이 생겨 보이라가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 혼합물의 위험을 무릅쓰고 몇 분시에 수위를 끌며 보이라화선의 일선리프를 장엄전투...

혁신-삼지연립칩목생산을 위해 불꽃의 정진력을 발휘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인 광산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은 오늘날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지금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업적이 깃발이었던 영광의 일당에서 수평의 유포탄처럼, 당적용무의 승인과 더불어 눈이 울려갈 중정의 각오를 배태하며 만리마선구자대항을 향하여 비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정철협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과학기술인재육성에 생산장성의 열쇠가 있다

만리마선구자대의 열풍속에서 끊임없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풍동사람들이 거둔 모든 성과는 교육사업에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재육성에 큰 힘을 넣은 이 곳 초급당원장 한순명동무의 사업기풍과 려우고 생각할수 있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과학기술보급을 잘 꾸리고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높였을 때 인민경제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자기 부문, 분야에 정통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으로 소유한 참다운 혁명인재들로 준비시킴으로써 당의 전진과 과학기술인재육성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풍동광업에는 교육설비와 비품의 한도수준이 높은 풍동광업대학이 있다. 이 대학이 훌륭히 꾸려져 석관중산에 크게 이바지한 원인은 어떤 사연이 있다.

한순명동무가 이곳 초급당원장으로서 임명되어온지 얼마 안되어 어느날이었다. 그는 한방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정찰장으로 향하였다. 정찰부의 차관모습을 보며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해마다 생산계획은 높아가는데 학부들의 입학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한순명동무는 자신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다. 계획을 미달한 경쟁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단문답이 없었고 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복이 모자라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방도는 오직 기술혁신에 있다고 그것을 할 열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방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다. 자재의 기술인재육성, 이 문제부터 풀어야지.

이렇게 절실한 한순명동무는 그때부터 아무리 일이 바빠도 공업대학책임일꾼 강금숙동무를 자주 만나 교육설비를 알아보고 풀이하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힘껏 밀어주었다.

한방적으로 밀려놓은 일감이 달았지만 지혜의 끈을 놓아주지 않으면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로복을 대당하게 돌려 대학교사보수공사를 벌려주도록 하였다.

그때로 말하면 당면한 석관생산도 건장하고 제때 근원인 부실한정진실을 비롯하여 많은 일감을 맡아주고 일꾼들이 쉬고있었다. 그래서 그날속에서 당장 턱을 보지 못하는 교사보수는 쑤 쑤로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초급당원장은 일꾼들에게 교육사업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방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정치사업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작용을 한것은 한순명동무의 인식적적이었다. 그의 헌신적인 일본새는 일꾼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교육사업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 로복적으로, 물질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태도가 늘어났다. 한방적인 편입이 높아지는 속세 2층짜리 대학교사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려졌다.

대학교사에 어울리게 교육설비와 비품을 갖추어주는 사업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지만 초급당원장은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여기고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었다.

여기서 초급당원장이 잘한 것이 있다. 대학에서 자체로 실험기교육을 위한 실습용을 잘 운영하도록 하여 그 턱을 훌륭히 보게 한것이다. 한편 해질까지 힘든 교육설비와 비품들은 자기가 직접 맡아주곤 하였다. 이 과정에 20여 명의 종합강의실의 책정상들이 모두 새것으로 교체되었으 며 3개의 실험실습실, 2개의 컴퓨터실, 전자도시실, 사무실 등에도 90여대의 컴퓨터, 액정텔레비전과 비품이 포함된 교육설비와 비품들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모든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되고 식사실과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휴양시설

들, 금수장지에 이상이 생겨 보이라가 가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 혼합물의 위험을 무릅쓰고 몇 분시에 수위를 끌며 보이라화선의 일선리프를 장엄전투...

혁신-삼지연립칩목생산을 위해 불꽃의 정진력을 발휘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인 광산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은 오늘날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지금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업적이 깃발이었던 영광의 일당에서 수평의 유포탄처럼, 당적용무의 승인과 더불어 눈이 울려갈 중정의 각오를 배태하며 만리마선구자대항을 향하여 비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정철협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세멘트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간다. - 신원세멘트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흥훈 특필

알짜는 누가 메야 하는가

《혁신대의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지표로 됩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로동자들이 새기명대의 기조역을 구현하고 수산업의 새기명대를 향유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고싶어 우리는 전진수산사업소를 찾았다.

우리는 배양장에서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면 지혜의 원천호동무를 만나보

현존이 기념에 보람이 꽃뚱이 이야기 그리고 전승세대를 따라배우자

지난 6월 하성진전령로병은 평성시 옥전2동에 자리잡은 자기 집에서 64년만에 벌어진 풍란은 상봉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방안을 서성거리다가는 상봉쪽으로 주중주중 다가서는 그는 몇몇전부러 앞을 보지 못한다. 전령로 병상당한 후과였다. 하지만 실명의 아픔도 전화의 나날이 351고지에서 땅이 아닌 심장에 새겨넣은 한 인민군용사의 불굴의 모습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 잊지 못할 전우가 찾아오고있는것이다.

각각적인 상봉을 그려며 하성진은 생 각했다.

그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조국방위전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대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후대들에게 유훈을 사상정신적 재부를 남겨주는 전승로병을 혁명선수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랑으로, 힘으로 쫓는다.》

주제42(1953)년 6월 2일, 하성진이 속한 중대에 전령로병의 가솔한 싸움을 벌이고있는 351고지용사들을 응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중대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고지알에는 적들의 시체가 너저분하였다. 고지의 전초에는 숙연한 정적뿐.

모두 회상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먹을 불끈 쥐는것이 선가 다급히 울리는 해침, 여기엔 한 투사가 있었다. <모두 달려들었다. 거기에 살던 살아있었다. 음복제인 폭탄구멍에서

온몸이 피에 젖고 군복은 갈라져 찢겨져 내달기리면서도 남아있는 두개의 수류탄을 딱 붙여잡은 채 서슬무른 눈으로 전방을 노려보는 한명의 인민군용사!

발사신과도 같은 그가 바로 15분만에 351고지를 점령한 영웅한 위훈자들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중원부대가 올 때까지 몇몇 안되는 전투원들과 함께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사수한 마지막전투원이었다.

당시 전투에 처음 참가한 신

대웅 눈금이 갔다.

《...수화기를 든 부대장 주재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들리었다.》

《대대장동지, 351고지를... 351고지를 탈환하였습니다.》

...

세계를 깜짝 놀래는 기적의 15분, 351고지 15분점령이라는 전투신화가 인류사에 기록되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주재현은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것을 주먹으로 씻으며

수십년동안 헤어졌던 협육의 소식을 듣고는 그보다 더 반가웠고싶었다. 그는 부랴부랴 주재현전령로병과의 상봉모임을 가진 녀령중앙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그곳 일군들의 친절할 도움으로 만경대구역 만경대동 73인민반에 살고있는 주재현을 전화를 만났으며 끝내는 64년전인 이날의 뜻깊은 상봉이 마련되었다.

《성진동무!》

그녀나 수명을 총지하게 만들고 조국을 걸사보위한 1950년대 조국방위사의 승군인 정신에야 무슨 차이가 있나.

오늘도 변함없는 351고지용사전투원들의 위훈의 모습을 전령로병에 다시 조이박으며 애절한 심대한 하성진은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가솔한 전화의 그날처럼 이생애 다할 때까지 조국수호의 전초를 지키는 영원한 전우로 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0년대 영웅전사라고 젊은이들이 불러주시고 정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의 귀중한 보물로 내세우셨다는 전령로병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영웅배담이 없는 영웅, 잠깐 후손자들이

《내 고향의 정든 집》

전사가요 《내 고향의 정든 집》은 1211고지가 바보이기는 어느 한 무명고지에서 창작되었다. 거증스러운 원수들의 목적으로 정든 고향은 불타버렸지만 병사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나사자란 정든 집들은 그 무엇으로도 불타들수도 빼앗아들수도 없었다.

사할하는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을 환복숨비쳐 지키기 위한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던 그때 우리의 음악예술인들도 죽음이 두려워하는 전쟁으로 달려나갔다.

회상에 나선 작곡가들의 심장속에서는 늘럽게도 격동적이며 전투적인 곡들이 아니라 애제남의 도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이었던 인민군전사들의 풍부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아름다운 서정가요의 산물이 울려나왔다. 그 대표작이요 바로 《내 고향의 정든 집》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애국자는 자기의 고향과 부모자식 그리고 조국의 고향을 포기하지 않고 애국과 사랑의 여기를 구획적으로 표현합니다.》

소련대통령들과 함께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을 찾아간 작곡가 미연상은 전에서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지만 마음속에 불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안고 사는 우

리 인민군전사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결코 나사자란 평안이 아니었다.

나의 고향은 나의 고향! 나의 정든 집!

바로 이런 열화같은 조국애와 수호자의 자각과 의지가 있었기에 리수봉영웅을 비롯한 유망무명의 전사들이 사랑하는 내 고향의 정든 집들을 지키, 조국의 한치방을 지키 귀중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쳤던것이다.

작곡가의 심장속에서는 내 고향의 정든 집을 소중히 안고 싸우는 인민군전사들의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 승리한 조국의 패에 대한 신념이 뜨겁게 응축된 사색적이면서 또 격동적인 서정가요의 선물이 베풀었다.

그 하나하나의 음조와 선율들은 조국의 한치방을 내 고향의 정든 집으로 여기는 병사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한것이었다. 전사들은 누구나 이 카요를 부르면서 조국의 고지들을 사수하였고 인민들은 전승정신을 다그치며 병사들의 정든 고향방을 염세화하였다.

《가다라라 나의 고향 나사자란 신원이어 원수치고 돌아 가면 너를 안아드리리》

오늘도 이 뜻깊은 시어는 사할하는 고향과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싸운 영웅용사들의 영원한 삶의 해침으로 전만관민의 심장속 뜨겁게 불리고있다.

《내 고향의 정든 집》

우리 인민군전사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결코 나사자란 평안이 아니었다.

나의 고향은 나의 고향! 나의 정든 집!

바로 이런 열화같은 조국애와 수호자의 자각과 의지가 있었기에 리수봉영웅을 비롯한 유망무명의 전사들이 사랑하는 내 고향의 정든 집들을 지키, 조국의 한치방을 지키 귀중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쳤던것이다.

작곡가의 심장속에서는 내 고향의 정든 집을 소중히 안고 싸우는 인민군전사들의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 승리한 조국의 패에 대한 신념이 뜨겁게 응축된 사색적이면서 또 격동적인 서정가요의 선물이 베풀었다.

그 하나하나의 음조와 선율들은 조국의 한치방을 내 고향의 정든 집으로 여기는 병사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한것이었다. 전사들은 누구나 이 카요를 부르면서 조국의 고지들을 사수하였고 인민들은 전승정신을 다그치며 병사들의 정든 고향방을 염세화하였다.

《가다라라 나의 고향 나사자란 신원이어 원수치고 돌아 가면 너를 안아드리리》

오늘도 이 뜻깊은 시어는 사할하는 고향과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싸운 영웅용사들의 영원한 삶의 해침으로 전만관민의 심장속 뜨겁게 불리고있다.

실화 64년만에 만난 전우

대원이었던 하성진은 그를 잘 알지 못했다. 이름조차 몰랐다. 하지만 전화의 나날을 뒤돌아볼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전우들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그 용사가 있었다.

하성진은 새 세대들과의 상봉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전투담보다 이름보다 그 인민군용사의 위훈을 먼저 이야기하곤 하였다.

방문이 벌려 열리며 안개가 휘어졌다.

《여보, 자기 주재현동지가 왔어.》

안개에 이따금 방울을 내리면서 하성진의 생각은 그날 고지를 본다.

주재현!

바로 그다. 그 이름을 알게 된것은 언제였나.

우연하게도 그것은 351고지 전투 6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그날도 하성진은 벼듯처럼 《도동선문》을 펼쳐 보았다. 거기에 살던 살아있었다. 음복제인 폭탄구멍에서

현재 고지에는 7명의 병사가 있다는것과 중원부대를 빨리 보내달것을 말하였다. ...》

전투실화는 뜻밖에도 하성진이 너무도 잘 아는, 60년 세월 상봉모임 때마다 곱씹어온 바로 그 전투담이었다.

하성진은 전투실화를 읽고 또 읽었다. 지금껏 잊지 못한 불굴의 용사의 이름을 알게 된것이 못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그후 하성진은 완전히 실망되었다.

지난 4월 어느날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도동선문》을 1부부터 차례로 읽어내며 며칠간 안개가 4면에 이르러 평복을 두었다.

《여보, 주재현전령로병이 살아있어요. 여기에 그가 녀령원들과 상봉모임을 한 소식과 함께 사진까지 있었어요.》

안개의 말은 하성진을 잠막 놀래였다.

(그가 살아있었구나.)

《세련동지!》

서로 얼얼한 두 로병의 주름진 얼굴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하성진의 안해 분별되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두 로병은 온몸 땀이 고갈인 회로를 나누었다. 전쟁시기에 겪은 일들이며 전투들에 대한 추억이며...

이유하여 하성진은 몰랐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재현 동지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재현은 흐리 웃었다. 《영웅은 무슨... 전쟁때야 그렇게 싸웠지, 동무도 351고지를 끝까지 사수한 중원부대의 마지막 다섯병사 중 한사람이 아니요.》

그는 우연한 눈길로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도 내 귀에는 조국을 끝까지 지키는 전우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는것만 같소. 그래서 난 나이가 지나도록 군복을 벗지 않았소. 지

《내 고향의 정든 집》

전사가요 《내 고향의 정든 집》은 1211고지가 바보이기는 어느 한 무명고지에서 창작되었다. 거증스러운 원수들의 목적으로 정든 고향은 불타버렸지만 병사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나사자란 정든 집들은 그 무엇으로도 불타들수도 빼앗아들수도 없었다.

사할하는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을 환복숨비쳐 지키기 위한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던 그때 우리의 음악예술인들도 죽음이 두려워하는 전쟁으로 달려나갔다.

회상에 나선 작곡가들의 심장속에서는 늘럽게도 격동적이며 전투적인 곡들이 아니라 애제남의 도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이었던 인민군전사들의 풍부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아름다운 서정가요의 산물이 울려나왔다. 그 대표작이요 바로 《내 고향의 정든 집》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애국자는 자기의 고향과 부모자식 그리고 조국의 고향을 포기하지 않고 애국과 사랑의 여기를 구획적으로 표현합니다.》

소련대통령들과 함께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을 찾아간 작곡가 미연상은 전에서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지만 마음속에 불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안고 사는 우

혁명선배들을 존경하는 마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적으로 전령로병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우며 그들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령로병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본사전경국으로는 사회적으로

로병의

제가 이렇게 편을 든것은 연안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 서송민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할하는 조국을 지켜 싸우며 싸우려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웅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조국을 지킨 전령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듯히 돌보아주는것은 새 세대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면서 서송민동무는 평일날과 생일날은 물론 매일이 저의 집을 찾아와 친필묵의 정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그는 저의 안해가 눈병으로 고생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그 치료할 위해

로 전령로병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우며 그들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령로병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본사전경국으로는 사회적으로

로병의

제가 이렇게 편을 든것은 연안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 서송민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할하는 조국을 지켜 싸우며 싸우려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웅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조국을 지킨 전령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듯히 돌보아주는것은 새 세대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면서 서송민동무는 평일날과 생일날은 물론 매일이 저의 집을 찾아와 친필묵의 정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그는 저의 안해가 눈병으로 고생하고있다는 것을 알고 그 치료할 위해

의 건강을 걱정하며 앉을새라 마음을 쓰는 박성현동무, 얼마전에도 그는 많은 식모들과 생활용품들을 마련해가지고 안해와 함께 찾아와 노래까지 불러주면서 저를 따듯히 위해 주셨습니다.

동사부소일군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은 한계 등의 주민들을 돌보노라 할 시간이 모자라지만 우리 원수들에게서 급때기처럼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는 전령로병들이 마음속 따듯을 누려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아껴주고 그의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 고 있습니다. 뜻밖의 사정으로 먹는불공급이 일시 중단되었

을 때 제일먼저 우리 집에 달려와 불초를 들고나선 사람들도 동사부소일군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생활에 대해 늘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서 구걸하듯 도와주는 박성현동무와 동사부소일군들의 사랑과 정은 한가침의 울타리를 벗어난 참된 동지적사랑이며 순결한 도덕의 리에 기초한 불같은 헌신인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과 헌신이 떠날때까지 우리 전령로병들은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을 누리고있는것입니다.

천리마구역 천진동 래기촌

오늘도 화선에 서있는 《포마지회자》

《포마지회자》, 이것은 중학시절 학교합창단 지휘자였던 신형규동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남긴 혁명의 군복을 입었을 때 전우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전쟁의 3년세월 그는 군가선장으로 전우들을 원수적투사로 불리웠고 키고 전투승리에 이바지하곤 하였다.

전승의 추모가 오는 때로써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화선속에서 부르면 군가들을 높이 부르며 성스러운 애국의 길을 꿇듯이 이어나가고 있는 신형규동무의 모습은 참된 로병이던 어떤 사람인가를

《포마지회자》, 이것은 중학시절 학교합창단 지휘자였던 신형규동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남긴 혁명의 군복을 입었을 때 전우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전쟁의 3년세월 그는 군가선장으로 전우들을 원수적투사로 불리웠고 키고 전투승리에 이바지하곤 하였다.

전승의 추모가 오는 때로써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화선속에서 부르면 군가들을 높이 부르며 성스러운 애국의 길을 꿇듯이 이어나가고 있는 신형규동무의 모습은 참된 로병이던 어떤 사람인가를

《포마지회자》, 이것은 중학시절 학교합창단 지휘자였던 신형규동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남긴 혁명의 군복을 입었을 때 전우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전쟁의 3년세월 그는 군가선장으로 전우들을 원수적투사로 불리웠고 키고 전투승리에 이바지하곤 하였다.

전승의 추모가 오는 때로써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화선속에서 부르면 군가들을 높이 부르며 성스러운 애국의 길을 꿇듯이 이어나가고 있는 신형규동무의 모습은 참된 로병이던 어떤 사람인가를

《포마지회자》, 이것은 중학시절 학교합창단 지휘자였던 신형규동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남긴 혁명의 군복을 입었을 때 전우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전쟁의 3년세월 그는 군가선장으로 전우들을 원수적투사로 불리웠고 키고 전투승리에 이바지하곤 하였다.

전승의 추모가 오는 때로써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화선속에서 부르면 군가들을 높이 부르며 성스러운 애국의 길을 꿇듯이 이어나가고 있는 신형규동무의 모습은 참된 로병이던 어떤 사람인가를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지을수 없는 전쟁의 흔적, 천백배 복수하리라

전쟁의 포성이 멎어도 수십년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저비린 죄악은 오늘까지도 지울수 없는 흔적으로 이 땅의 곳곳에 생생히 남아있다.

사회주의승리의 령령을 부르며 용장화려하게 일떠서서 령령거기, 그 전승때에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맺은 복판물들이 발견되었다.

우리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행복에 겨워 예사로 오고가던 유보도밀에 원수의 불발탄이 숨어있을줄.

평화로운 우리의 거리에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깊숙이 남아있을줄.

지금은 이 땅 곳곳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맺은 복판물들이 계속 발견되고있다.

조선사람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철천지원수 미제마냥 수십년 동안 자기의 정체를 망각할이 감추고있는 그 복판물들을 보며 사람들은 날마다 미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악랄한것이였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전대 전제 대정양전투에 투항한것보다 많은 폭탄을 부조성에 투하하여 많은 도시를 파괴하고 수천수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미국인리네트잡지 《복스》도 《미국인들은 북조선에 어떤것을 하였는지 망각하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투하한 수백만 폭탄 중에는 3만 2000의 나팔탄도 들어있으며 민간대상물도 의도적으로 이 폭탄을 투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제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나팔탄 등과 함께 현대의 총이폭탄의 한 종류인 나비탄까지 대량으로 사용하여 온 강토를 말그대로 초토화하였다.

전쟁전 정황에는 약 7만 4000동의 가족과 행정기관 및 문화기관건물이 있었으나 미제공공비적들의 폭격에 의하여 다 파괴되고 온전한 건물이라고는 시에 하나도 없었다. 평양은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하여 말그대로 제대미만 남았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살해되거나 한지에 나앉았다.

수도 평양만이 아니었다. 미제는 지방도시와 농촌에 대한 폭격, 포격도 악랄하게 강행하여

미제침략군 해군소장 스티스는 원산에서 사할한것을 저버리던 수명도 많은 도시를 파괴하고 수천수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미국인리네트잡지 《복스》도 《미국인들은 북조선에 어떤것을 하였는지 망각하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투하한 수백만 폭탄 중에는 3만 2000의 나팔탄도 들어있으며 민간대상물도 의도적으로 이 폭탄을 투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제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나팔탄 등과 함께 현대의 총이폭탄의 한 종류인 나비탄까지 대량으로 사용하여 온 강토를 말그대로 초토화하였다.

전쟁전 정황에는 약 7만 4000동의 가족과 행정기관 및 문화기관건물이 있었으나 미제공공비적들의 폭격에 의하여 다 파괴되고 온전한 건물이라고는 시에 하나도 없었다. 평양은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하여 말그대로 제대미만 남았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살해되거나 한지에 나앉았다.

수도 평양만이 아니었다. 미제는 지방도시와 농촌에 대한 폭격, 포격도 악랄하게 강행하여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령한 명도말레 그 때대미우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피로 얼룩진 피의의 역사에 수직스러운 파괴의 기록을 새겼지만 우리 인민은 보람찬 전승의 역사에 영원운 창조적 기록을 새겼다.

미제가 모든것을 파괴한 이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떠세우리!

이런 목적, 포격대행은 정진, 인의주, 해주, 사리원 동 풍화국북안부의 모든 도시들에서 강행되었다.

미제는 해방후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복구건설한 수목발전소, 황해제철소(당시), 성진제강소(당시), 홍남비료공장(당시), 남포제철소(당시), 평양방직공장(당시) 등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연속적으로 폭격하여 폐허나 다름없이 만들었다.

미제에 의한 파괴상이 얼마나 처참했든 어느 한 시민은 폭격에 참새처럼 없어진 조선이었고 자기의 격한 심정을 토로했겠는가.

이렇듯 미제는 온 나라를 제대미로 만들기 위해 피를 물고 달려들었으며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어리석게 떠벌어졌다.

《포마지회자》, 이것은 중학시절 학교합창단 지휘자였던 신형규동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남긴 혁명의 군복을 입었을 때 전우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전쟁의 3년세월 그는 군가선장으로 전우들을 원수적투사로 불리웠고 키고 전투승리에 이바지하곤 하였다.

전승의 추모가 오는 때로써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화선속에서 부르면 군가들을 높이 부르며 성스러운 애국의 길을 꿇듯이 이어나가고 있는 신형규동무의 모습은 참된 로병이던 어떤 사람인가를

《포마지회자》, 이것은 중학시절 학교합창단 지휘자였던 신형규동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남긴 혁명의 군복을 입었을 때 전우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전쟁의 3년세월 그는 군가선장으로 전우들을 원수적투사로 불리웠고 키고 전투승리에 이바지하곤 하였다.

전승의 추모가 오는 때로써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화선속에서 부르면 군가들을 높이 부르며 성스러운 애국의 길을 꿇듯이 이어나가고 있는 신형규동무의 모습은 참된 로병이던 어떤 사람인가를

《포마지회자》, 이것은 중학시절 학교합창단 지휘자였던 신형규동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남긴 혁명의 군복을 입었을 때 전우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전쟁의 3년세월 그는 군가선장으로 전우들을 원수적투사로 불리웠고 키고 전투승리에 이바지하곤 하였다.

전승의 추모가 오는 때로써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화선속에서 부르면 군가들을 높이 부르며 성스러운 애국의 길을 꿇듯이 이어나가고 있는 신형규동무의 모습은 참된 로병이던 어떤 사람인가를

온 민족의 대단결에 통일이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발표 45주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민족대단결의 거룩적토록을 가로막는 대결과 적대의 악력을 단호히 청산하고 온 겨레의 단결을 힘으로 통일할 활로를 열어나갈 데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절필히 바라는 온 겨레의 열렬한 염원과 조상님 현정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 에 놓고 사상과 리념, 경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7.4 공동성명에 명시된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통일강국건설의 원동력이다.

내의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자면 민족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전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온 민족이 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본뜬다면 어떤 난관과 장애도 극복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민족대단결이 통일위업실현의 확고한 담보라는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가 현실로 증증해 주었다.

민족의 대단결은 시대의 요구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지만 민족적공통성과 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면 단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단결의 의지만 있다면 북과 남은 얼마든지 통일의 동반자로서 손잡고나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북남관계는 유감스럽게도 단결이 아니라 대결의 극단적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피괴보수세력의 반통일적행동이 빚어낸것이다. 한피 흘린 우리는 통일을 화해와 단합의 대상이 아니라 대결과 압박의 대상으로 삼은 피괴보수세력의 반민족적인 편袒과 횡포를 우리의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과 적대행위, 끊임없는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이어왔다. 외세와 아합하여 반공화국제압압박에 피를 흘리고 남의 배를 타는것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국가테러범죄행위까지 서슴치 않은 악근해태의 죄악은 이미 만연하여 드러나고 있다.

피괴보수세력이 북남관계파괴에 미쳐 남침이 빚어놓은 대결과 적대의 악력을 청산하는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결, 민족대단결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가장 큰 장애물은 통일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이다.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박근혜는 온 민족의 존엄한 정절을 말았지만 통일에 대한 불신과 적대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다.

통일을 찾는 대신 의외로 통일을 추구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오늘 겨레가 현결같이 요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근본개선이며 새로운 통일시대의 개척이다.

하지만 전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선의와 노력은 외면하고 외세와의 《동맹》과 《내적북악공조》의 강화를 추구하고있으며 《북핵문제해결》의 간판 밑에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힐문하면서 반공화국제압압박과 군사적도발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얼마전 미국행차에 나선 남조선당국자가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그 무슨 생의 《은인》으로 피어올리며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조를 떠먹어 대고 도이쉴랜드에서 《북핵문제》가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는것이 어윤을 오토한 사실 그리고 피괴보수정부를 통일을 《주적》이라고 고아 대며 외세와 아합하여 북침전쟁발생장소로 대며 매일같이 힐문하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북남관계개선을 필사적으로 방해해나오는 친미보수세력의 장면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는 통일은 통일을 위한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보수세력파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구태의연한 대결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열쳐일어나는 대중적인 초불합평에 의해 박근혜정권이 비합한 종말을 고한것은 민족을 배신하고 민심을 격역하여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다.

통일을 찾는 대신 의외로 통일을 추구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오늘 겨레가 현결같이 요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근본개선이며 새로운 통일시대의 개척이다.

하지만 전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선의와 노력은 외면하고 외세와의 《동맹》과 《내적북악공조》의 강화를 추구하고있으며 《북핵문제해결》의 간판 밑에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힐문하면서 반공화국제압압박과 군사적도발소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얼마전 미국행차에 나선 남조선당국자가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그 무슨 생의 《은인》으로 피어올리며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조를 떠먹어 대고 도이쉴랜드에서 《북핵문제》가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는것이 어윤을 오토한 사실 그리고 피괴보수정부를 통일을 《주적》이라고 고아 대며 외세와 아합하여 북침전쟁발생장소로 대며 매일같이 힐문하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북남관계개선을 필사적으로 방해해나오는 친미보수세력의 장면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는 통일은 통일을 위한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보수세력파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구태의연한 대결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열쳐일어나는 대중적인 초불합평에 의해 박근혜정권이 비합한 종말을 고한것은 민족을 배신하고 민심을 격역하여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에 대한 불신을 고착시키고 있다.

미국은 《싸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싸드》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의지 표명

남조선 《뉴스1》을 비롯한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피괴보수정부가 경상북도 성주군에 미국의 《싸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한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웃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단체들, 종교인들이 13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참가자들은 《싸드》배치의 위험성에 대해 폭로단파하고 이를 철수시켜서 가져와진 것을 더욱 힘있게 밀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각지에서 미국과 당

국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싸드》배치행동을 반대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의 토론회, 집회 등이 전개되었다.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2일 경상북도 성주군, 김천시의 주민들과 불교 교인들,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이 서울에 있는 피괴보수정권에 대해 폭로단파하고 이를 철수시켜서 가져와진 것을 더욱 힘있게 밀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각지에서 미국과 당

가민정부를 조사한 결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미흡하고 부지면적을 조개어 통용한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언급하였다.

《싸드》배치와 관련한 협의, 결정과정은 물론 부지취득 및 등록, 백성장비의 기술안입과 가공,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가 불법적이고 부당명하였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싸드》배치의 전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들은 《싸드》배치의 전과정을 조사함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피괴보수정권에 제출하였다.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는 괴뢰경찰의 폭행

이날 소성리에 달리는 1300여명의 과포경찰은 《싸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가 로동자들이 제기한 괴뢰경찰의 폭행에 대한 민정청문회 청문회 《정무》가 받아들일것을 주장하는 사안을 밝혔다.

사실은 기업주들이 로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괴뢰경찰위원회에서 괴뢰기업인들을 위한 합의를 하지 않았고있는데 대해 언급

하였다.

괴뢰인 한 괴뢰기업인상과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성고발을 더하여 민주로동과 《한국로동》이던 《정무》에 로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다고 사실은 지적하였다.

사실은 로동자들의 괴뢰기업

인상인원이 어려움을 겪게 된 리유는 현 《정무》에 의지가 없기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국민을 위해 싸야 할 수십억의 돈을 미국에 넘겨버리는 조공의료를 한 현 집권자나 피조는 조공을 4년정도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는 리명만으로도 다 알고있는 놈들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고 사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합법적정당을 강제 해산시킨 파썸적당동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동두천 지역 주민들 미군기지의 완전철수 요구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4일 동두천시주민들로 구성된 미군기지철폐시민단체대책위원회가 동두천시청에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전쟁 미8군사령관이라는 자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210포병부대를 동두천에 남겨두겠다고 지시함에 대하여 단죄하였다.

미제침략군이 지난해에 동두천시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를 되어있었으나 미침공의 화력전대 능력이 증강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2020년까지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미군 잔류 분노한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2일 남조선의 대결 《민중의 힘》을 비롯한 대결의 시민단체들이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청산과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이 문제해결이 세계청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청산이 사회의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에도 일본정부가 그것을 부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성노예피해자들이 원하는것

미제침략군 사병이 남조선녀성을 성폭행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넘겨놓은 온갖 적폐의 청산과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합법적 정당이라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폭우피해

특히 충청남북도 남조선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시간당 최고 90mm의 폭우가 내린 청주시는 강하천의 물이 범람하여 도시중심까지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폭우피해

특히 충청남북도 남조선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시간당 최고 90mm의 폭우가 내린 청주시는 강하천의 물이 범람하여 도시중심까지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폭우피해

특히 충청남북도 남조선 강원도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시간당 최고 90mm의 폭우가 내린 청주시는 강하천의 물이 범람하여 도시중심까지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

무엇을 노린 《위협》라령인가

일본이 우리 나라의 자주적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적 특색을 무시한 방대한 무력을 집중전개해놓고 저들에게 대결할 수 있는 나라들을 불의의 핵선제공격으로 제압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핵군비경쟁이 심화되고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것은 아예 못 본척하고 우리 나라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행위를 시기시종상하며 못되게 놀아내고 있다. 유독 우리의 대북관건도목제트만이 《위협》으로 한다고 강하게 쓰고있다. 명백히 이중기언이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끌아가고있다. 그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구태하여 헌법적합을 반대하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를 녹여내고 어떻게 하나 제정을 합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금 일본정계에서는 헌법개정이 막자를 가져야 한다는 본조들이 여태없이 팽팡 뛰어나고있다. 수상 아베가 직접 나서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일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힘있게 하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대행,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 본부장 등 우익보수세력들이 모두 뛰어나 헌법개정안을 당내에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이전과 같은 내비어야 한다고 고이대고 있다. 그들은 헌법개정이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련을 건설하기 위한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비까지 불어내고 있다.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본》이란 문건

일본이 우리 나라의 자주적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적 특색을 무시한 방대한 무력을 집중전개해놓고 저들에게 대결할 수 있는 나라들을 불의의 핵선제공격으로 제압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핵군비경쟁이 심화되고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것은 아예 못 본척하고 우리 나라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행위를 시기시종상하며 못되게 놀아내고 있다. 유독 우리의 대북관건도목제트만이 《위협》으로 한다고 강하게 쓰고있다. 명백히 이중기언이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끌아가고있다. 그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구태하여 헌법적합을 반대하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를 녹여내고 어떻게 하나 제정을 합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금 일본정계에서는 헌법개정이 막자를 가져야 한다는 본조들이 여태없이 팽팡 뛰어나고있다. 수상 아베가 직접 나서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일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힘있게 하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대행,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 본부장 등 우익보수세력들이 모두 뛰어나 헌법개정안을 당내에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이전과 같은 내비어야 한다고 고이대고 있다. 그들은 헌법개정이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련을 건설하기 위한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비까지 불어내고 있다.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본》이란 문건

일본이 우리 나라의 자주적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적 특색을 무시한 방대한 무력을 집중전개해놓고 저들에게 대결할 수 있는 나라들을 불의의 핵선제공격으로 제압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핵군비경쟁이 심화되고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것은 아예 못 본척하고 우리 나라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행위를 시기시종상하며 못되게 놀아내고 있다. 유독 우리의 대북관건도목제트만이 《위협》으로 한다고 강하게 쓰고있다. 명백히 이중기언이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끌아가고있다. 그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구태하여 헌법적합을 반대하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를 녹여내고 어떻게 하나 제정을 합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금 일본정계에서는 헌법개정이 막자를 가져야 한다는 본조들이 여태없이 팽팡 뛰어나고있다. 수상 아베가 직접 나서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일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힘있게 하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대행,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 본부장 등 우익보수세력들이 모두 뛰어나 헌법개정안을 당내에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이전과 같은 내비어야 한다고 고이대고 있다. 그들은 헌법개정이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련을 건설하기 위한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비까지 불어내고 있다.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본》이란 문건

절대로 가리울수 없는 반인륜범죄

최근 제2차 세계대전당시 일본군성노예들의 비참한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동영상 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미국인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이 동영상은 1944년 중국남부의 만발정지역에 있던 일본군성노예들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져있다. 동영상은 일본군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노예피해자들이 수차례 써서 수십년전후 기증자들이 물어두었던 피해사실들을 연속 공개하였다. 성노예피해자들의 고통을 증언한 일본군복무자들의 증언이 들어있는 문서도 새로 공개되었다. 194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조선에서 끌려간 100여명에 달하는 20대, 30대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 출신지가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다른 사항들과 달리 직업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주소는 일본군문서보관소의 주소와 같았다. 당시 이 도시에는 10개의 일본군《위안소》가 있었다고 한다.

자료들은 과거 일본이 유괴, 납치한 조선녀성을 강제로 강간한 곳과 성노예살인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안보들이 노

일본이 우리 나라의 자주적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적 특색을 무시한 방대한 무력을 집중전개해놓고 저들에게 대결할 수 있는 나라들을 불의의 핵선제공격으로 제압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핵군비경쟁이 심화되고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것은 아예 못 본척하고 우리 나라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행위를 시기시종상하며 못되게 놀아내고 있다. 유독 우리의 대북관건도목제트만이 《위협》으로 한다고 강하게 쓰고있다. 명백히 이중기언이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끌아가고있다. 그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구태하여 헌법적합을 반대하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를 녹여내고 어떻게 하나 제정을 합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금 일본정계에서는 헌법개정이 막자를 가져야 한다는 본조들이 여태없이 팽팡 뛰어나고있다. 수상 아베가 직접 나서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일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힘있게 하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대행,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 본부장 등 우익보수세력들이 모두 뛰어나 헌법개정안을 당내에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이전과 같은 내비어야 한다고 고이대고 있다. 그들은 헌법개정이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련을 건설하기 위한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비까지 불어내고 있다.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본》이란 문건

일본이 우리 나라의 자주적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적 특색을 무시한 방대한 무력을 집중전개해놓고 저들에게 대결할 수 있는 나라들을 불의의 핵선제공격으로 제압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핵군비경쟁이 심화되고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것은 아예 못 본척하고 우리 나라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행위를 시기시종상하며 못되게 놀아내고 있다. 유독 우리의 대북관건도목제트만이 《위협》으로 한다고 강하게 쓰고있다. 명백히 이중기언이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끌아가고있다. 그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구태하여 헌법적합을 반대하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를 녹여내고 어떻게 하나 제정을 합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금 일본정계에서는 헌법개정이 막자를 가져야 한다는 본조들이 여태없이 팽팡 뛰어나고있다. 수상 아베가 직접 나서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일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힘있게 하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대행,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 본부장 등 우익보수세력들이 모두 뛰어나 헌법개정안을 당내에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이전과 같은 내비어야 한다고 고이대고 있다. 그들은 헌법개정이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련을 건설하기 위한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비까지 불어내고 있다.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본》이란 문건

일본이 우리 나라의 자주적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적 특색을 무시한 방대한 무력을 집중전개해놓고 저들에게 대결할 수 있는 나라들을 불의의 핵선제공격으로 제압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핵군비경쟁이 심화되고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것은 아예 못 본척하고 우리 나라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행위를 시기시종상하며 못되게 놀아내고 있다. 유독 우리의 대북관건도목제트만이 《위협》으로 한다고 강하게 쓰고있다. 명백히 이중기언이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의도적으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끌아가고있다. 그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구태하여 헌법적합을 반대하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를 녹여내고 어떻게 하나 제정을 합법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금 일본정계에서는 헌법개정이 막자를 가져야 한다는 본조들이 여태없이 팽팡 뛰어나고있다. 수상 아베가 직접 나서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일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힘있게 하고 있다. 자민당 간사장대행,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 본부장 등 우익보수세력들이 모두 뛰어나 헌법개정안을 당내에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이전과 같은 내비어야 한다고 고이대고 있다. 그들은 헌법개정이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련을 건설하기 위한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비까지 불어내고 있다.

《의사적인 교섭을 갖는 일본》이란 문건